

조선 전기 중국 서적의 사입(賜入)과 구입

－ 『朝鮮王朝實錄』의 수록 내용을 중심으로

서원남 · 이소연

(한양대학교)

1. 서론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이래 서적은 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된 문화의 소산으로 문화적 업적이 집약되었다. 또한 현실의 변화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매체였다. 이로 인해 다양한 문화수입과 서적의 유통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조선 건국초기에 해당하는 15세기는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관찬사서들의 등장이 크게 눈에 띈다. 이와 동시에 조선시대는 기록문화를 중시하였는데, 그 예로 『朝鮮王朝實錄』의 편찬이 대표적이다. 특히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조선 전기의 많은 서적들이 소실되어 15세기의 서적들의 가치는 매우 크다. 본 논문은 중국과의 서적 교류에 관한 비교 작업의 일환으로, 『朝鮮王朝實錄』 가운데 정치 기반의 설립과 왕권이 강화된 시기인太祖부터 成宗시기까지의 서적 교류 현황과 당시 조선의 시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중국 서적에 관한 논문들은 對明 書籍 무역을 다루었다.¹⁾ 본 논문에서는 왕조별로 조선에 어떠한 서적들이 賜入과 購入으로 전해졌는지 알아보고, 중국 고대서적 분류법인 經, 史, 子, 集에

맞추어 정리하려고 한다.)²⁾ 또 이는 중국의 서적이 조선 초기에 어떠한 영향과 그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朝鮮王朝實錄』의 국역 사이트를 중심으로 하되 원문 사이트도 참고하였다. ³⁾

2. 시대적 배경

朝鮮王朝의太祖부터成宗에 이르는 시기는 전제왕권을 근간으로 하는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고 완성한 강력한 왕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은 유교 정치이념과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정책이 일제히 꽃을 피우게 된다. 高麗말기의 혼란한 정세를 거친 조선은 건국초기에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創業의 기틀을 세워야 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각종 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가장 적절하게 流入할 수 있는 서적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특히,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업적이 뛰어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世宗의 서적에 대한 열정은 이후에 방대한 서적편찬사업으로 이어졌다.

上自在潛邸，好學不倦，嘗有微恙，猶且讀書不已。太宗使小宦盡取書帙，唯歐、蘇手簡在側，乃取盡閱。及即位，手不釋卷，雖在進膳時，必開卷置諸左右，或至宵分，輿臺不厭。 ⁴⁾

1) 李存熙, 朝鮮前期文化外交의性格 :對明 書冊貿易, 震檀學報 44, 1997 ; 鄭亨恩, 朝鮮前期的書籍收集及管理, 朝鮮時代書誌史研究, 韓國研究院, 1983 ; 金允植, 朝鮮 世宗朝의書籍文化考察, 同大論叢17, 1987.

2) ‘經’은 經書, ‘史’는 역사, ‘子’는 曆法, 地理書, 醫書와 교훈을 목적으로 한 책, ‘集’은 詩, 賦, 曲, 言語 등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4) 「또 임금이 潛邸에 있을 때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게을리하지 않아서 작은 병이 있어도 독서를 그치지 않으셨다.」 世宗의 이러한 독서습관은 世宗朝에 서적문화가 절정을 이룰 수 있게 하였고, 조선 전체를 통해 최고의 多讀家였고, 모든 분야의 학문에 정통한 학자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종은 책의 바다를 자유롭게 헤엄친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서적문화를 지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조선의 국왕들은 유교의 정치이념을 구현하고 왕권강화를 위해서 각종 체제를 정비하고 조선의 문화와 사상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태조는 병력을 증양으로 집중시켜 왕권강화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였고, 관리의 선발제도를 재편하였다. 또, 지방의 행정단위를 개편하여 왕권을 지방에까지 확대시켜 조선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였다. 太宗⁵⁾은 사병폐지와 외척세력을 숙청하고 호패법, 신문고 제도를 실시하였다. 또, 崇儒抑佛정책을 추진하고 조세와 토지제도를 정비하였다. 秘記類 서적은 금지하고 權近(1352~1409)의 『勤學事目』⁶⁾에 따라 사학의 발전을 장려하고, 향학 정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고려의 전통을 이은 금속활자의 주조는 1403년에 鑄字所를 설치하여 조선시대 최초의 동활자인 癸未字를 만들고 楮貨紙를 만들기 위해 造紙所를 설치하였다.⁷⁾

世宗은 太宗이 이루어놓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조선왕조를 보다 발전된 유교국가로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어려서부터 눈병을 초래할 정도로 책에 몰입하였고, 독서의 지식범위 또한 넓고 깊었다. 세종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문학과 역사, 유학은 물론, 언어학, 음악학, 천문학, 농학, 기계학 등 광범위하였다. 또한 집현전을 정비하여 경연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왕의 학문적 관심을 나타내었다.⁸⁾ 특히 세종은 왕으로

수 있었다.

5) 태종대에 출판된 서적은 다음과 같다.

① 歷史書 『東國策略』② 法典 『續六典』、 『經濟六典』、 『大學衍義』、 『元續六典』

6) 小學의 중요성과 의의를 밝혀 陳言한 서적

7)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나다 p. 49, 푸른역사, 2007

6) <表1> 世宗朝의 연도별 經筵教材

即位	年度	經筵教材	即位	年度	經筵教材
元年	1418	大學衍義, 近思錄	10年	1429	通鑑綱目, 史記
1年	1419	詩經, 大學衍義, 春秋胡氏傳, 春秋	11年	1430	尙書, 書經, 春秋左氏傳, 詩經
2年	1420	通鑑綱目	12年	1431	六典, 自治通鑑續編, 律呂新書
3年	1421	大學, 大學語錄	13年	1432	宋鑑, 六典
4年	1422	中庸, 尙書, 通鑑綱目	14年	1433	宋鑑, 性理大全

써 서적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서적문화를 진두지휘하였다. 太宗시기에 만들어진 계미자는 활자 모양이 아름답지 않고, 활자 크기 또한 들쭉날쭉했다. 世宗은 1434년 계미자의 단점을 보완하여 활자가 완정하고 인쇄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진 甲寅字를 만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편찬물이 집현전 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⁹⁾ 이는 중국과의 서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각종 분야의 서적들이 편찬되고, 지속적인 서적 교류와 편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世祖(1417~1468)는 국방력 신장에 힘써 戶籍·戶牌制를 강화, 鎭管體制를 실시하여 전국을 방위체제로 편성하였으며 中央軍을 五衛 체도로 개편하였다. 경제정책에서 科田法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하여 과전을 폐하고 職田法을 실시,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여 국가수입을 늘렸다. 1458년에는

5年	1423	通鑑綱目	15年	1434	性理大全, (新撰)六典
6年	1425	大學, 論語, 孟子, 詩傳, 詩經	16年	1435	性理大全, 宋朝名臣言錄, 直解小學, 論語
7年	1426	春秋左氏傳, 春秋, 春秋胡氏傳, 周易	19年	1438	詩傳, 詩經, 書經, 春秋
8年	1427	周易, 大學衍義, 通鑑綱目	20年	1439	春秋, 春秋左氏傳
9年	1428	通鑑綱目	21年	1440	自治通鑑

조선 초기는 새 왕조의 문물법제를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그 과정 가운데 世宗은 집현전을 설치하여 成均館을 중심으로 經學을 중시하고 朱子學을 핵심으로 하는 고전을 탐구하고 그것을 經筵에서 강론토록 하였다. (權延雄, 世宗朝의 經筵和 儒學, 世宗文化研究 1, 박영사, 1982)

經傳의 강론을 통해서나 혹은 그것의 정치적 활용을 통해서 조선왕조의 성리학 통치론은 세종대를 거치면서 이제 王道政治論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朝鮮 性理學의 이해 수준이 世宗朝의 集賢殿 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經筵강의를 통해서 비로소 제 궤도에 올라서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김태영, 『조선성리학의 역사상』,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2006)

9) 세종대에 출판된 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조선왕조 건국의 과정을 그린 『龍飛御天歌』
- ② 歷史書 『東國通鑑』
- ③ 地理書 『新撰八道地理志』
- ④ 農書 『農事直說』
- ⑤ 醫學書 『鄉藥集成方』
- ⑥ 曆書 『七政算內篇』, 『七政算外篇』等

태조에서 문종에 이르는 역대 신왕의 치적을 모아 『國朝寶鑑』을 편찬하게 했다. 또 조선 왕조의 기본법전을 만들고자 『經國大典』 편찬을 시작했으나 戶典 11항, 刑典 18항만을 완성하는데 그쳤다.¹⁰⁾

成宗은 世宗·世祖가 이룩한 치적을 기반으로 하여 빛나는 문화정책을 펴 나갔다. 조선의 건국이 여러 분야에 걸쳐 고려와는 다른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성문 법전의 편찬이었다.¹¹⁾ 世祖대에 시작된 『經國大典』의 편찬은 1474년(成宗 5)에는 완성되어 반포되었다. 1492년(成宗 23)에는 『經國大典』을 더욱 보충하여 『大典續錄』을 간행하였다. 또한 世宗 때의 集賢殿에 해당하는 弘文館을 설치하고, 文臣 중의 俊才를 골라 賜暇 讀書하게 하는 湖堂제도를 두어, 儒者·문인들로 하여금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3. 중국서적의 賜入과 購入 현황

조선 건국 초기 명나라는 역대의 다른 왕조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대외 관계를 추진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국제 질서를 형성하였다. 즉, 명 주변의 접촉할 수 있는 모든 외국의 오직 朝貢을 통해서만 중국과 접촉할 수 있었다. ¹²⁾ 본래 조공이란 정치적, 외교적인 기능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공관계도 양국 간의 관계가 어떤가에 따라서 정치적인 기능보다는 문화적인 기능이 위주가 되었다.¹³⁾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은

10) 세조대에 출판된 서적은 다음과 같다.

① 農書 『衿陽雜錄』, 『四時纂要』, 『蠶書註解』, 『養牛法抄』 ② 歷史書 『國朝寶鑑』, 『東國通鑑』 ③ 『經濟六典』, 『續六典』, 『元六典』, 『六典膳錄』 ④ 佛經 『法華經』, 『金剛經』, 『大藏經』 ④ 其他 『同文選』, 『樂學軌範』等

11) 조선시대 법전 편찬 역사는 다음과 같다.

『朝鮮經國典』 → 『經濟六典』 → 『元六典』 → 『續六典』 → 『正典』6권 → 『新撰經濟六典』 → 『經國大典』 → 『續大典』 → 『大典通編』 → 『大典通編』 → 『六典條例』

12) 최소자, 『명청시대 중·한 관계사 연구』p. 15~17,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건국 초기 안으로는 왕권강화와 집권체제 정비를 완성하고, 밖으로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확립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事大交隣정책을 표방하는 외교정책으로 나타났고, 외교적인 의례로서 경제적 교류와 함께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다. 14)

3.1 중국서적의 賜入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당시의 국내 및 국제정세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親明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문인과 지식인들의 독서 대상은 중국의 서적들이었다. 중국 서적은 끊임없이 수입되어 읽히고 있었고, 조선과 명의 공식적인 왕래는 史臣을 통해 이루어졌다.¹⁵⁾ 사신들의 왕래가 중국 서적 수입에 큰 역할을 하였다. 앞서 시대적 배경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조선은 적극적으로 중국의 서적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賜入이란 명의 천자(天子)가 직접 하사(下賜)를 하는 서적을 말한다.¹⁶⁾ 조선의 사신과 역관이 명에 금, 은, 인삼 등을 중국에 가져가면 그 답례로 중국의 서적들을 받아오는 형식이었다.

3.1.1 太祖~太宗 시기에 賜入된 서적분류

太宗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한 기본 방침으로 文治主義를 선택하였다. 무력이나 가혹한 형벌이 아닌 서적을 통해 백성을 교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유교이념에 의한 文治主義를 실현하기 위해 유교경전을 과거제도의 시험과목으로 정하였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작동시켜 文治主義를 실현하기 위해 필

13) 정석원, 朝鮮의 中國書籍輸入과 燕行의 機能, 문경 제4호, 중국어문학논집, 1992. 8.

14) 신양선, 15세기 조선시대의 서적수입정책, 實學思想研究 第12輯 p. 167, 역사와실학, 1999. 1.

15) 鄭士德, 中國圖書發行史, p.293, 中國時代經濟出版社, 2009.

16) 정석원, 朝鮮의 中國書籍輸入과 燕行의 機能, 문경 제4호, 중국어문학논집, 1992. 8.

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이 서적이었다. 이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중국으로부터 유교경전과 관련된 서적과 교화를 목적으로 전거나 역사서 등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太祖부터 太宗시기의 賜入된 서적들은 다음 표와 같다.

〈表2〉 太祖~太宗 시기에 賜入된 서적분류

卽位	年度	書名	著者	分類	簡略解題
태조7년	1398	大統曆	郭守敬(元)	子	명나라때의 역법
태종1년	1401	建文三年大統曆		子	명 惠帝때 大統曆을 편찬
태종1년	1401	大學衍義	眞德秀(南宋)	經	《大學》에 대한 주석서
태종1년	1401	通鑑集覽		史	
태종1년	1401	事林廣記	陈元靓(宋)	集	생활문화 백과사전
태종2년	1402	文獻通考	馬端臨(明)	史	348권의 法制文獻
태종3년	1403	通鑑集覽		史	
태종3년	1403	十八史略	曾先之(宋末元初)	史	《史記》이하 17개 정사에 송대의 사료를 첨가한 18사로서, 중국역사의 대요를 알기에 적당
태종3년	1403	元史	宋濂	史	紀傳體史記로 明代 30명이 편찬
태종3년	1403	山堂考索	章如愚(南宋)	子	經史百家의 말을 넓게 취해 정치제도를 논한 저서
태종3년	1403	諸臣奏義	趙汝愚(北宋)	史	북송대 奏議를 모아놓은 책
태종3년	1403	大學衍義	眞德秀(南宋)	經	《大學》에 대한 주석서
태종3년	1403	春秋會通	李廉(元)	經	《春秋》에 의거하여 尊王攘夷의 사상을 논함
태종3년	1403	眞西山讀書記	眞德秀(南宋)	子	43권의 서적으로, 별칭 《乙集上大學衍義》
태종3년	1403	朱子成書	黃瑞節(元)	子	朱熹의 일부 저작을 모음
태종4년	1404	古今列女傳	解縉(明)	史	元·明대까지의 열녀전기
태종4년	1404	通鑑集覽		史	
태종6년	1406	四書衍義	周焱	經	《四書》에 대한 주석서
태종6년	1406	大學衍義	眞德秀(南宋)	經	《大學》에 대한 주석서
태종8년	1408	大明孝慈高皇后傳書		史	《明史》 가운데 孝慈高皇后에 대한 전기
태종8년	1408	永樂六年大統曆		子	
태종8년	1408	通鑑集覽	趙翼 등	史	원래 명칭은 《御批歷代通鑑輯覽》 또는 《御批通鑑輯覽》으로 편년체 사서

태종8년	1408	大學衍義	眞德秀(南宋)	經	《大學》에 대한 주석서
태종8년	1408	仁孝皇后勤善書		史	明나라 仁孝皇后의 덕양을 가르치기 위한 도덕서
태종8년	1408	孝慈皇后傳		史	明나라 孝慈皇后에 대한 전기
태종9년	1409	永樂七年大統曆日		子	
태종15년	1415	神僧傳	永樂帝(明)	史	불교 고승들의 전기집
태종15년	1415	諸佛如來名稱菩薩歌曲	成祖(明)	集	불교의식에 쓰이던 곡을 모아 민간에 알리기 위한 악곡집
태종18년	1417	菩薩如來名稱歌曲	上同	上同	上同

특히, 《山堂考索》은 南宋의 체제위기를 총체적으로 제도정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왕조는 이 책을 통해 중국역대왕조의 문물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작업을 단행하려고 하였다.¹⁷⁾ 太祖는 건국 후에도 불교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朝鮮은 기본적으로 유학의 나라였다. 여러 가지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들이 구체화되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유교와 불교의 소통을 모색하는 다소 소극적인 방식¹⁸⁾이 있었다. 《神僧傳》과 《諸佛如來名稱菩薩歌曲》은 각각 승려들의 전기와 불교음악과 관련된 서적으로 소통의 흔적을 나타내는 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개국을 전후로 한 시기의 대체적인 학문 경향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太祖는 卽立敎書에서부터 과거제도에서 四書를 비롯한 五經 등의 經書를 시험하는 것을 표방하였다.¹⁹⁾ 그래서 이 시기에 四書와 관련된 서적들의 賜入이 현저하다. 또한 이것은 太祖가 詞章을 과목으로 삼았던 고려의 과거제도에서 文科

17) 朱子思想研究會 編, 『조선의 주자학과 실학』, 서울: 혜안, 2009

새로이 등장한 신유학적 왕정체제에서 유교적 민본을 실현하려는 목표 아래 새로운 文物制度가 만들어졌다. 각종 정치제도의 마련, 典章制度와 각종 儀禮의 정비 등은 새로운 왕조에 맞는 文物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의 소산이었다.

18) 武學의 제자 己和는 불교가 유교와 서로 융합될 수 있다는 護敎論를 제시하여 어려움에 처한 불교계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의 논변은 유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儒佛이 근원적으로 소통한다고 주장하여, 간접적으로 불교를 옹호하는 수세적 방식을 택하고 있다.

19) 太祖實錄, 卷1, 太祖, 元年, 7月, 丁未條

初場에는 講經을 시험하는 새로운 과거제도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⁰⁾

3.1.2 世宗시기에 賜入된 서적 분류

동서양을 막론하고 건국 초기에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보급하고 끌어들이기 위하여 많은 서적의 편찬이 이루어진다. 世宗의 서적에 대한 관심은 다른 역사적 사례와 구별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실용성과 주체성이다. 이는 중국 문화에서 얻은 실용적인 가치를 우리 형편에 맞게 승화시키려는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朝鮮의 문물을 일으킨 世宗은 인쇄술을 발달시키고 집현전 학자들과 한글을 창제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역사·윤리·음운·법률·지리·천문 등의 여러 분야의 책의 편찬에 관심을 가져, 직접 편찬에 참여하거나 편찬을 지시했다. 世宗시기에 賜入된 서적은 다음 표와 같다.

〈表3〉 世宗시기에 賜入된 서적 분류

卽位	年度	書名	著者	分類	簡略解題
元年	1418	名稱歌曲		集	
世宗1年	1419	爲善陰鷲書	朱棣	子	
世宗1年	1419	新修性理大全	胡廣	子	각종 성리철학의 문헌을 모은 70권의 책
世宗1年	1419	四書五經大全		經	
世宗3年	1421	大統曆		子	
世宗3年	1421	性理大全	胡廣 等	經	각종 성리철학의 문헌을 모은 70권의 책
世宗3年	1421	通鑑集覽		史	
世宗15年	1433	四書五經大全	胡廣 等	經	유가 경전 주석서
世宗15年	1433	性理大全		經	각종 성리철학의 문헌을 모은 70권의 책
世宗15年	1433	通鑑集覽		史	
世宗16年	1434	陰鷲書		子	
世宗16年	1434	名稱歌曲		集	
世宗17年	1435	資治通鑑 (胡三省音註資本)	司馬光(北宋)	史	B.C.403부터 A.D.959까지의 편년체 통사

20) 정재윤 외, 『세종의 국학 경영』, 서울: 지식산업사, 1998.

四書에 대한 조선의 관심은 世宗대에 『大典』類의 책들이 명나라에서 수입되면서 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이들 『大典』類의 책은 명나라 永樂帝에 의해 편찬된 책으로서 흔히 ‘永樂三大全’이라 불리는 《四書大全》、《五經大全》、《性理大全》을 지칭한다. 이 책들은 명대 성리학이 官學化를 넘어서 체제의 수호 이데올로기로 변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²¹⁾

특히, 世宗은 《資治通鑑》을 새로 편찬하는 일에 몰두했다. 이 책에 대한 여러 주석을 모아 조선의 학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책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²²⁾ 결국 《資治通鑑思政殿訓義》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고려시대 安珣에 의해 성리학이 전해진 이래 조선의 유학자들은 열심히 이 사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가운데 《性理大典》은 世宗이 즉위하기 불과 3년 전에 편찬되었다. 당시 명나라 관리들의 필독서였고, 世宗과 조정의 대신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3.1.3 文宗 ~ 成宗시기에 賜入된 서적 분류

명나라 曆書인 《大統曆》은 고려 말기에 전해진 이후 조선 건국 초기부터 賜入되었던 《大統曆》이 世祖때에 다시 賜入되었다. 世祖는 儒生들의 독서를 금지하는 禁書을 내리고, 궁궐의 藏書를 모조리 불태우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중국과의 서적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조카 端宗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임금이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世祖는 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못하였다.²³⁾ 그러나 文宗때에 이르러 다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事文類聚》는 원래 명칭은 《新編古今事文類聚》이

21)

22) 이재정, 『조선출판주식회사』, 서울: 안티쿠스, 2008

23) 이러한 이유로 世祖는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쓴 반면 유학자들의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하였다. 이는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불교에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승려들에게 度牒(일종의 승려 신분증)을 발급하고 圓覺寺 창건, 刊經都監 설치 등을 추진하였다.

다. 여러 차례 《事文類聚》가 간행되어 사용된 것은 저자인 祝穆이 朱子의 제자이기 때문에 朱子學의 색채가 중국보다 강렬하였던 조선의 학자들에게 어떠한 類書보다도 더욱 흡인력을 가질 수 있었다.²⁴⁾ 문종부터 성종시기에 賜入된 서적은 다음 표와 같다.

〈表4〉 文宗 ~ 成宗시기에 賜入된 서적 분류

即位	年度	書名	著者	分類	簡略解題
端宗2年	1454	宋史		史	원의 기전체 관찬사서. 본기 47권, 志162권, 表32권, 列傳250권으로 구성
世祖12年	1466	大統曆		子	
睿宗1年	1469	五倫書	朱瞻(明)	子	
睿宗1年	1469	五經大全	胡廣(宋)등	經	유가 경전 주석서
睿宗1年	1469	性理大全	胡廣(宋)등	經	유가 경전 주석서
成宗6年	1475	文章類選			
成宗12年	1481	資治通鑑	司馬光(北宋)	史	B.C.403부터 A.D.959까지의 편년체 통사
成宗12年	1481	程氏遺書	朱熹(南宋)	經	朱熹의 저서
成宗12年	1481	眞西山集	眞德秀	集	眞德秀의 문집
成宗12年	1481	事文類聚	祝穆(南宋)	子	南宋 祝穆과 元 富大用, 祝淵이 지은 유서
成宗12年	1481	致堂管見	胡廣(宋)	史	
成宗12年	1481	宋朝文鑑	呂祖謙(宋)	史	
成宗13年	1491	蘇文忠公集	蘇軾	集	蘇軾의 문집으로 어려운 부분에 주를 달아 보충
成宗25年	1503	大學衍義補	丘濬(明)	經	大學衍義를 새롭게 보충

이 시기에는 어느 시기보다도 활발하게 서적의 수입과 간행이 이루어진다. 四書류는 각도의 觀察使에게 나누어 주거나 刊印하게 하여 풍속을 교화하는 지침으로 삼아서 『小學』은 집집마다 소장하고 읽을 정도가 되었고,²⁵⁾ 열

24) 김영선, 「중국 유서의 한국 전래와 수용에 관한 연구」 第26輯, 서지학회, 2003.

25) 『世宗實錄』卷95, 成宗9年 8月 庚戌條

녀에 관한 부분은 諺文 으로 만든 『三綱行實烈女圖』를 간행하여 배포하기도 하였다.²⁶⁾ 또한 북송대 학자들의 문집류를 수입함으로써 성리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다. 성종 13년에는 『蘇文忠公集』의 난해한 곳을 註解하게 하기도 하였고,²⁷⁾ 17년에는 聖節使로 하여금 『蘇文忠公集』을 購入해 오도록 하기도 하였다.²⁸⁾

3.2 중국서적 購入

조공무역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많은 책이 유입되었고, 조선의 서적 문화와 지식인층 사이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賜入된 서적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서적 구입은 수월한 것이 아니었다. 명의 폐쇄적인 대외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문화적 교류나 인적 왕래는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은 중국 정부의 禁制를 피하면서 禮部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代價를 지불하는 방식인 購入이 성행하였고, 특히 世宗 (1418~1450) 시기에는 『齋去事目』²⁹⁾과 같

26) 『世宗實錄』卷127, 成宗12年 3月 戊戌條

27) 『世宗實錄』卷140, 成宗13年 4月 甲辰條

28) 『世宗實錄』卷198, 成宗17年 12月 己亥條

29) 『世宗實錄』卷69, 17年 8月 癸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에서 새로 편찬된 《사서대전》 《오경대전》 등이 있다면 사 오도록 할 것.
- ② 理學관계, 즉 《사서대전》 《오경대전》 등은 물론이고, 史書도 국내에 없으면 이전 것보다 나은 최근 것으로 유익한 것이면 매입할 것.
- ③ 書法 《綱目》 《國語》 등도 매입할 것.
- ④ 《胡三省資治通鑑》 趙元璧 《源委》 金履祥의 《通鑑前編》 陳經의 《歷代筆記》 등은 수증이 가능하면 매입하지 말고, 요청할 때도 드러내 놓고는 하지 말것.
- ⑤ 구입할 때는 반드시 탈락에 대비하여 2부씩 매입할 것.
- ⑥ 北京에 大全의 판본이 있다면 紙·墨 을 마련하여 사사로이 인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 볼 것.
- ⑦ 《永樂大全》의 간행 여부 및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 볼 것(이 항목에 대한 내용은 세종 17년 12월 경술조에 나타난다.)
- ⑧ 중국 鑄字의 字體와 인출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볼 것 등.

신양선, 「15세기 조선시대의 서적수입정책」, 實學思想研究 第12輯, 역사와 실학, 1999

은 목록이 있어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서적 교류가 활기를 띠었다.³⁰⁾

3.2.1 太宗 ~ 世宗시기에 購入한 서적 분류

世宗은 聖節使³¹⁾를 파견하여 중국에서 책을 적극적으로 구해오고자 하였다. 《資治通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직접 使臣에게 명하기도 하였다. 국내에 없거나 구하기 어려운 理學 · 史書를 중심으로 사신 편에 구입하게 하되 가능하면 賜入을 하는 것이다. 購入할 경우에는 複本을 준비 하되, 책판이 있는 경우는 종이와 먹을 준비하여 刊行해 올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조선은 중국을 천자의 나라로 섬기는 상황이었고, 중국으로부터 핵심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지리서의 購入이 현저하게 늘어났는데, 지리서는 중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였다.³²⁾ 太宗 ~ 世宗시기에 購入한 서적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表5〉 太宗 ~ 世宗시기에 購入한 서적 분류

即位	年度	書名	著者	分類	簡略解題
太宗9年	1409	春秋穀梁傳	穀梁赤	經	유교 경전의 하나인 《춘추(春秋)》의 해설서
世宗7년	1425	集成小學		經	경사의 기본적인 요체가

30) 上同

31) 聖旦使라고도 하였고 正朝使, 冬至使와 함께 三節使라고도 일컬었다. 이들은 입사행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행해지는 정례사행으로서 三節兼年貢使 또는 冬至使, 節使로도 불렸다. 使節團의 구성은 모두 30명으로 정하였는데, 正使 · 副使 · 書狀官 각 1명, 代通官 3명, 護貢官 24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밖에 從人은 일반적으로 250명 정도였으나, 1755년(英祖 31)에는 541명에 이르러 말뚝을 빗기도 하였다. 예물은 일정하지 않으나 황제에게는 모시·명주·수달피·花席 등을, 황후에게는 모시·명주·화석 등을 선사하였다. 예물을 정하는 것은 호조에서 맡아 하였는데, 사신과 함께 물건을 선택하면 왕이 친히 본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이 사절단은 해마다 10월 말이나 12월 초에 출발하여 3월 말이나 4월 초에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32) 조선은 중국을 천자의 나라로 섬기는 상황이었지만, 중국으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는 데 필요한 책을 확보하기 위해 금법을 무릅쓰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 지도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큰 핵심 매체였다.

					담겨있는 성리학 입문서
世宗8년	1426	祖訓條章		子	훈계서적
世宗13년	1431	地理大全		子	지리서적
世宗13년	1431	地理全書		子	上同
世宗13년	1431	地理新書		子	上同
世宗13년	1431	夫靈經		子	上同
世宗13년	1431	天一經		子	上同
世宗13년	1431	地珠林		子	上同
世宗13년	1431	宋播芳		子	上同
世宗17년	1435	五經大全	胡廣(宋)등	經	유가 경전 주석서
世宗17년	1435	性理大全	胡廣(宋)등	經	유가 경전 주석서
世宗17년	1435	資治通鑑 (胡三省音註資本)	司馬光 (北宋)	史	B.C.403부터 A.D.959 까지의 편년체 통사
世宗17년	1435	源委	趙元璧		
世宗17년	1435	通鑑前編	金履祥	史	편년체사서
世宗17년	1435	歷代筆記	陳桎	史	
世宗17년	1435	宋史		史	
世宗17년	1435	通鑑綱目	朱熹	史	《資治通鑑》을 기초로 편찬한 강목체의 사서
世宗17년	1435	書法		集	
世宗17년	1435	國語	左丘明 (春秋)	史	《春秋外傳》이라는 춘 추시대 각 국가별 역사의 기록서
世宗21년	1439	御製孝子錄		史	
世宗21년	1439	稽古定制書		子	교훈서
世宗21년	1439	常禮圖		子	
世宗22년	1440	資治通鑑 (胡三省音註資本)	司馬光 (北宋)	史	B.C.403부터 A.D.959 까지의 편년체 통사
世宗22년	1440	大明集禮	徐一夔	史	徐一夔 등이 편찬한 명대 의 禮典集書

세종대 『大全』류의 賜入 이전에 이미 태종대에도 『大學衍義』와 『通鑑綱目』의 賜入이 있었고, 이를 鑄字로 인쇄하여 인출하였다. 이것은 송대 朱熹가 정리한 성리학의 성과를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성리학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데 더하여 『大全』류나 『通鑑綱目』등이 購入되어 송대 朱子性理學의 성과뿐만 아니라 元과 明에 의해 體制敎學化된 성리학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3.2.2 文宗 ~ 世祖시기까지 購入한 서적 분류

이 시기에는 《周禮》、《儀禮》 등의 유교 서적과 건국초기부터 관심을 가졌던 曆書에 대한 대량의 購入이 시작되었다. 또 과거시험과 관련된 醫書들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文宗 ~ 世祖시기에 購入한 서적 분류는 다음 표와 같다.

〈表6〉 文宗 ~ 世祖시기까지 購入한 서적 분류

即位	年度	書名	著者	分類	簡略解題
文宗1年	1451	周禮	周公(周)	經	서주 봉건제도를 이상화하여 지은 관제의 경전으로 유가의 정치 이념을 내포
文宗1年	1451	儀禮	周公(周)	經	17권의 경서. 중국 고대의 예법을 기록
文宗1年	1451	經傳通解	朱熹	經	《儀禮經傳通解》라고도 했으며, 송대 주희가 각종 역사서를 이용해 《儀禮》에 대해 주석한 것
文宗1年	1451	續儀禮集傳		經	
文宗1年	1451	集註通志		經	
文宗1年	1451	中庸輯略	石塾(宋)		
文宗1年	1451	資治通鑑	司馬光(北宋)	史	B.C.403부터 A.D.959까지의편년체 통사
文宗1年	1451	宋史		史	
文宗1年	1451	朱文公集	朱熹	經	
文宗1年	1451	宋朝名臣五百家播芳大全		經	
文宗1年	1451	文粹			
文宗1年	1451	續文章正宗			
文宗1年	1451	備舉文言			
文宗1年	1451	宋朝名臣奏義			
端宗3年	1455	聖惠方		子	판본이 없는 醫書
端宗3年	1455	永類鈴方		子	醫書
端宗3年	1455	得效方		子	醫書

端宗3年	1455	和劑方		子	醫書
端宗3年	1455	衍義本章		子	醫書
端宗3年	1455	補註銅人		子	醫書
端宗3年	1455	纂圖脈經		子	醫書
世祖6年	1460	大明曆		子	易書
世祖6年	1460	回回曆		子	易書
世祖6年	1460	授時曆		子	易書
世祖6年	1460	通軌		子	易書
世祖6年	1460	啓蒙揚輝全集		子	易書
世祖6v	1460	捷用九章		子	易書
世祖7年	1461	洪武正韻	樂韶鳳 等	經	樂韶鳳 등이 조서를 받아 편찬한 음운서
世祖7年	1461	地理大全		子	地理書

앞서 말한 四書에 대한 관심은 후대 왕조에도 이어지게 된다. 문종대에는 『痛鑑』류나 『朱文公集』과 같은 주자성리학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서적들의 구입을 명하기도 하였다.³³⁾ 하지만 癸酉靖難을 계기로 집권한 世祖대의 경우에는 성리학 관계 서적보다는 대체로 의학 서적이거나 佛書, 혹은 地理書 등을 구입하라는 명이 있거나 수입하기도 하였다.³⁴⁾ 또한 세조대에 출판된 책도 대체로 醫書나 兵書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³⁵⁾ 세조 이후에는 다시 反轉되어 성리학 관계 책들이 예종 대에 수입되었다.

3.2.3 成宗시기의 購入한 서적 분류

高麗末부터 朝鮮초기에 들어오기 시작한 性理學이 《性理大全》을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점차 심화되고 정착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朱子大全》, 《朱子語類》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책들은 16세기 조선의 서적사업에 간행과 보급되어 주자학의 기틀을 세우게 된다.³⁶⁾

33) 文宗實錄, 卷8, 文宗 1年 庚申條

34) 世祖실록, 卷10, 世祖3年 11月 庚午條

35) 世祖실록, 卷4, 世祖2年 7月 辛未條

36)

〈表7〉 成宗시기의 購入한 서적 분류

卽位	年度	書名	著者	分類	簡略解題
成宗6年	1475	新增綱目通鑑		史	
成宗7年	1476	朱子語類大全	黎 德(南宋)	子	일명 《朱子語類》. 朱熹가 문인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
成宗9年	1478	七政曆		子	曆書
成宗11年	1480	文翰類選			
成宗11年	1480	五倫書			
成宗11年	1480	律條疏議			
成宗11年	1480	國子通志			
成宗11年	1480	趙孟頫書簇		集	
成宗12年	1481	朱子語類	黎靖德(南宋)	子	일명 《朱子語類》. 朱熹가 문인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
成宗13年	1482	新語	劉向	子	
成宗13年	1482	說苑	劉向	子	춘추전국에서 漢代에 이르는 貴文 및 逸事를 기록한 20편의 필기류
成宗13年	1482	淸華集	劉向	集	
成宗13年	1482	分類杜詩	邵寶(明)	集	杜甫의 시사를 분류하여 배열함
成宗13年	1482	朱子語類	黎德(南宋)	子	일명 《朱子語類》. 朱熹가 문인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것
成宗17年	1486	蘇文忠公集	蘇軾	集	蘇軾의 문집
成宗19年	1488	歷代名臣法帖		集	
成宗19年	1488	東垣拾事		集	
成宗21年	1450	續資治通鑑綱目		史	
成宗21年	1450	趙孟頫書簇		集	글씨본
成宗21年	1450	活民大略			
成宗23年	1492	朝鮮賦	董越(明)	子	중국 명나라 사신 董越이 조선 풍토를 賦로 읊은 내용 엮은 책
成宗25年	1494	大學衍義補	丘濬	經	명나라 丘濬이 지은 《大學》 주석서
成宗25年	1494	輯註武經七書			
成宗25年	1494	陳書	姚思廉	事	陳부터 後周까지의 정사

성종시기에는 『大全』류 뿐만 아니라 주목되는 책으로 『朱子語類大全』

의 수입과 이해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드러난 문제점은 『大全』류가 갖는 문제점을 한편으로는 성리학을 정리한 朱子의 직접적인 저술을 통하여 다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朱子語類大全』은 『朱子語類』와 같은 책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朱子語類』를 모은 책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成宗實錄』에 20권이 수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⁷⁾ 또한 成宗대에 眞德秀의 『大學衍義』를 명대에 새로이 보완한 丘濬의 『大學衍義補』가 있다. 『大學衍義補』의 購入은 이 시기 『大學衍義』와 함께 帝王學의 교과서라는 관점에서 購入되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명대에 송대 이래의 帝王學에 대한 정리를 다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더욱 철저하게 황제 중심적인 제도의 운영이라는 시각에서 帝王學을 다루고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4. 결론

서적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였던 만큼 책을 생산, 보급, 관리하는 일은 국가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조선은 나라의 근본을 찾고 서적이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 귀중한 존재였던 만큼 그 정보를 국가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하였다. 조선은 가장 중요한 정보 매체는 서적이었고, 서적은 곧 권력의 상징이었다. 그 결과 통치자들은 필요한 책을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생산, 보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택하였다. 중국으로부터 책을 구하는 일은 쉬운 경로가 아니었다. 성리학의 고향이

37) 『成宗實錄』卷 67, 成宗 7年 5月 乙卯條 “謝恩使鄭孝常、朴良信回自京師復命。傳曰：“因齋戒未得引見。中朝事如何？且景泰追封後，得無布告天下乎？” 孝常對曰：“無矣。” 仍進《朱子語類》、《大全》二十卷曰：“此書近來所撰，故進之。”

본래 南宋의 黎靖德이 편찬한 『朱子語類』는 140권으로 이전에 나온 李道傳·李成傳·蔡抗이 각각 편집한 3종의 『朱子語錄』을 다시 비교하여 완성한 책이었다. 따라서 成宗 7년에 들어온 책이 黎靖德 편찬한 『朱子語類』일 경우에는 卷帙이 다 갖추어지지 않은 미완성본일 가능성이 높다.

고 문화적으로 선진국이었던 중국에서 서적을 들여오기 위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다.³⁸⁾ 이처럼 중국과의 서적 교류는 治國의 도구와 문화적 교류, 더 나아가 조선의 서적편찬사업에 박차를 가하였고 서적을 통한 조선의 세상과의 소통을 지속시켜 주었다.

❖ 참고 문헌

1. 〈原典〉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2. 論著

권오봉, 『聖學十圖의 中國 頌傳, 韓國의 哲學』, 慶北大學校退溪研究所, 1989

김문식, 「조선시대 중국서적의 간행과 기능 -四書五經大全中心 -」 第29輯, 奎章閣, 2006

김영선, 「중국유서의 한국전래와 수용」 第26輯, 書誌學會, 1998

38) 중국은 조선과 우호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신을 통해 여러 차례 책을 하사했고, 또 사신들도 유리창의 서점과 서반을 통해서 필요한 책을 구입했다. 그러나 天文, 曆法, 兵法, 및 역사책과 지도류 같은 책들은 모두 地理, 歷史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이었으므로 외국에 함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당시에 책은 지식과 정보 습득 및 전달에서 가장 핵심적인 매체였으므로 책을 확보한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의 핵심에 도달한다는 의미였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국의 책이 조선에 임의대로 유출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통제를 가했다.

신양선, 「15세기 조선시대의 서적수입정책」, 實學思想研究 第12輯, 역사와 실학, 1999

정석원, 「조선의 중국서적수입과 그 연해의 기능」, 문경 제4호, 中國語文學論集, 1992

3. 單行本

김태영, 『조선성리학의 역사상』,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부, 2006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나다』, 서울: 푸른역사, 2007

신병주, 『하룻밤에 읽는 조선사』, 서울: 中央M&B, 2003

이성무, 『조선왕조사』, 서울: 동방매체, 1998

이재정, 『조선출판주식회사』, 서울: 안티쿠스, 2008

정재윤 外, 『세종의 국가경영』, 서울: 지식산업사, 2006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정치사상연구』, 서울: 태학사 2005

지두환, 『조선 성리학과 문화』, 서울: 역사문화, 2009

최소자, 『明清時代 中·韓 관계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최승희, 『조선초기 정치문화의 이해』, 서울: 지식산업사, 2007

홍선표 外, 『17·18世紀 한국의 외국서적 수용과 독서실태 - 목록과 해제-』, 서울: 慧眼, 2003

韓國哲學史硏究會, 『韓國哲學思想史』, 서울: 深山, 2005

기시모토 미오·미야지마 히로시 지음/김현영 외 譯, 『조선과 중국 근세 오백년을 가다』, 서울: 역사비평사, 2003

羅樹寶 著/曹賢珠 譯, 『중국 책의 역사』, 서울: 다른생각, 2008

4. 中國 單行本

鄭士德, 『中國圖書發行史』, 北京: 中國時代經濟出版社, 2009

❖ ABSTRACT

The Offers and Purchases of Chinese Books during the
Early Chosun Dynast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Weon Nam Seo, Soyoun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books exchange between china and Joseon dynasty. Books, ancient and modern are an essential part to publish, propagate, administer the books which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among nations. Also they are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and the symbol of the government power. As a result the rulers had brought many necessary books from China and it is a national policy to govern in Joson dynasty.

This study will discuss the introduction of chinese books from the Annals of the Joson Dynasty, especially from the first king of the Joson Dynasty, Yi Seong-gye to the ninth king. At that times, Joson Dynasty had attempted to reign various policies. So many books related with the absolute authority of China.

In accordance with the book classification method in ancient china, they are have been categorized. Furthermore, it should have been a important clue to check the influence by being brought many books from China.

Key Words

문헌학, 서적, 서적분류, 서적 교류, 서적목록

bibliography, books, classification, books exchange, a list of chinese books

논문접수일: 2010. 2. 23.

심사완료일: 2010. 4. 10.

게재확정일: 2010. 4. 15.